

POLITICS

2025년 9월 5일 금요일

당정, '필수의료법·지역의사 양성법' 연내 처리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내달 19일 구례서 거행

전남도가 10·19 여순사건 추모행사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순천 10·19 사건 제77주기 합동추념식' 준비를 위해 지난 3일 유족회장, 도의원, 실무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중앙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대행사의 추념식 기본계획과 행사 진행계획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준비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희생자 추모의 연속함을 지키면서도 고령 유족들이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전국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합동추념식은 10월 19일 오전 10시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거행된다. 행사에는 유족을 비롯해 정부 대표,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념식은 묵념(사이렌)과 헌화·예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추모사, 유족사연, 추모공연이 이어지며, 도울 김용욱 선생의 '평화메시지' 낭독 순서도 마련될 예정이다.

추념식은 여순항쟁유족총연합회와 여순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구례군이 주관한다.

전남도는 이번 1차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준비 과정에 반영하고, 중앙위원회와 유족대표 등과의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제77주기 합동추념식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충분히 살리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성비위사건 피해" 탈당 선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와 2차 가해 등을 고발하며 4일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저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원회 인사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달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은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피해자 보호가 외면당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귀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겨냥해 "(조원장)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자랑할 날을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회견 후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조원장이 수감돼 있는 기간 당원들께서 편지로 (성비위 사건) 소식을 전했고 나눈 후에도 피켓으로, 문자로 해당 사실을 자세히 전해 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당도 입장 변화가 없었고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절차를 마쳤다"며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국가·지자체가 종합시책 수행...일정비용 지역의사 선발

국가돌봄책임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법안 통과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당정협약'에 참석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및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당정대 참석자들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당정은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온 필수 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필수의료 특별법(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의사 양성법(민중당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사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전공의의 병원 복귀율과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은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고 당정협약에서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간병비의 경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지난 10년간 진행됐지만 속도가 너무 더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 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운영되는 공론화 기구"이라며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회와 당정이 같이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향후 두 달에 한 번 정례 회의의

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간병비의 경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지난 10년간 진행됐지만 속도가 너무 더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 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운영되는 공론화 기구"이라며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회와 당정이 같이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향후 두 달에 한 번 정례 회의의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당정 협의회에 대해 "전 정부와 같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의원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공감하고 있고 개혁에 동참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이 없다"면서도 "과확적 근거 없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체를 입안해 진행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전남 광역경제권 구성 후 행정통합"

광주연구원 토론회서 밝혀...시 대전환 주도권 확보도

전문가들 공간·산업·문화 분야 광주발전 전략 발표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광주와 전남도가 광역경제권 구성 후 10년 이내에 행정통합까지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연구원 개원 2주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정무수석 시절부터 구상해온 500만 광역경제권 특별자치제 구상을 소개하며 "2030 광주의 미래" 비전을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여러 의견을 따져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광주가 더 크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산업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실현해 성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가치와 도시 성장을 결합하는 것이 광주가 선도적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광주실감콘텐츠연구소 Vx스튜디오에

서 열린 토론회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광주의 비전과 도시혁신'을 주제로 열렸다. 광주 2030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간·산업·문화 분야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김병진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는 세계와 통하는 다핵 네트워크 도시공간을 재편해야 한다"며 "글로벌 표준도시에 걸맞은 기반 시설 조성, 교육·의료·쇼핑·문화관광·금융 등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공간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록 선임연구위원은 "광주는 국가 AI 혁신거점에서 AI 국가 시범도시로 도약하는 단계에 있다"며 "포용성을 핵심 요소로 삼아 산업·사회·행정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옥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3.0 시대의 핵심 과제는 5대 문화권별 거점시설 완성, 상호연결 강화, 아시아 각국과의 활발한 문화 교류"라며 "광주가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도약하려면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 문화기관의 이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전광성 광주연구원 연구자문위원장을 좌장으로, 강현서 한기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장, 김항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이승운 광주청년정책조정위원장,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 황병하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등 6명의 전문가가 다양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최지국 광주연구원장은 "그간 공간, 산업, 문화를 특색과 연구 분야로 집중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글로벌 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도시혁신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

양궁대회 참가자에 '스포츠 관광도시' 어필

광주관광공사, 9일부터 호스트 시티 투어 코스 운영

광주관광공사는 광주시와 협업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호스트 시티 투어'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포츠 관광도시 '광주' 브랜드를 목적으로 세계 평화와 양궁 종목의 두드러진 자질을 겨루는 대회 참가자들의 한국 관광 기회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특히 투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시 시내 코스와 인근 지역을 연계한 편의 코스로 나눠 운영한다. 올해 광주방문의해를 맞아 기획된 특화 관광 '오일 광주, 소년의 기억'을 주제로 5·18민주광장을 둘러보는 코스를 포함한 참가자들이 행사와 함께 광주의 역사·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주요 거점 호텔 로비에 참가 안내 배너를 설치하고, 입국 후 광주 승수 차량 내에서 간단한 한국어 코스도 제공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하는 등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관광자원을 설명할 다국어 가이드 및 전

통 다도 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도 마련했다.

앞서 개최된 양궁연맹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스포츠·MICE 도시 홍보를 위해 참가자 이동 편의 제공 및 문화예술 체험, '찾아가는 웰컴데스크'와 '특화관광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웰컴데스크에서는 광주의 주요 관광 콘텐츠 안내와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요 대표단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견학과 금남로 오피닝쇼 이동 지원, 현장 홍보부스 운영으로 스포츠 관광·MICE 도시 광주의 위상을 알렸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광주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대형 국제 대회를 다수 유치한 경험이 풍부한 스포츠 관광 도시"라며 "참가자들이 이번 호스트 시티 투어를 통해 광주의 매력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중앙도서관



연경



양림 돌

광주중앙도서관 리모델링·연경·양림 돌 '최우수'

건축상 수상작 8점 발표...내달 21~24일 시청 시민홀서 전시

광주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는 4일 "2025년 제2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8점을 발표했다.

올해 광주시 건축상 최우수작에는 사회공공부문 '광주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비주거부문 '연경'과 '양림 돌'이 선정됐다. 우수작은 사회공공부문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 주거부문 'White Brick', 비주거부문 '비테리안테라스', '포시즌', 'Hello' 총 5점이 뽑혔다.

이번 공모에는 최근 5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작품 14점이 접수됐으며, 건축사와 대학교수 등 8명의 심사위원단이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확정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광주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딱딱하고 무거운 외관을 정리한 뒤 다양한 시도와 금속 재료 등을 활용해 현대적 감각을 구현해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했다.

비주거부문의 광산구 '연경'은 보행 접

근로와 정원을 결합해 생태적 요소를 담았으며, 남구 '양림 돌'은 불규칙한 대지 위에서 도시 흐름을 확장하는 설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선정된 건축물에 동판을 부착하고 건축사에게는 광주광역시장상과 상금을 시공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작들은 다음달 21일부터 24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리는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 전시되며, 광주건축단체연합회 누리집(gifika.org)에서도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여성창업 활성화·지속가능 생태계 구축

오늘 무안서 '2025년 전남여성 창업박람회' 개최

전남지역 여성들의 지속 가능한 창업 강화, 체험형 부스 확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창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4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전남광역여성세로일하기센터는 5일 오후 5시부터 무안군 남부 중앙공원에서 '2025년 전남여성 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여성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성장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남도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기념한 '함께 지키는 약속! 평등한 전남도' 양성평등 문화행사와 함께는 이번 행사는 전남지역 도민과 경력단절 여성에게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창업박람회에서는 창업컨설팅과 창업체제를 통한 판로지원을 통해 168명 이상의 컨설팅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박람회는 창업자 DB 구축과 사후관리

현장에서는 경력단절 예방 캠페인, 여성친화도시 정보 제공, 청소년 노동인권 존중, 외국인 노동자 상담, 청년정책 안내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도 함께 마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과 창업컨설팅을 원하는 전남지역 여성은 전남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남광역여성세로일하기센터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창업박람회 홍보 게시글의 신청 폼,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접수도 함께 진행된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여성 창업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